# 보살의 인간화로 수행자 길 제시하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③ 제천 신륵사 극락전 문수보현동자벽화



제천 신륵사 극락전 동측면(향우측) 문수동자벽화.



제천 신륵사 극락전 서측면(향좌측) 보현동자벽화.

### 동자형 보살의 탄생, 보살의 인간화

세계 불교미술사에서 문수·보현보살을 어린 동자로 표현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도나 티베트, 동남아시아에선 전무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선 유사한 모습이 몇 장면에서 보인다. 그마저도 청년이나 젊은 성인의 모습이다. 한국의 문수보현동자처럼 앳된 아이 모습의 표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불교 조형미술만의 독창적인 형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문수보현동자도는 세계 불교미술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왜 그런 동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가를 묻고 답해야 한다. 삼국 시대에도, 불교국가 고려 시대에도 동자형 보살도상은 보이지 않는다. 15세기 조선에 들어와 첫 형상을 만난다. 1466년 세조의 왕명으로 도상을 그리게 하고 제작한 오대산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이 그 주인공이다. 왜 문수보살이고 동자상으로 조성했는가? 오대산은 바로 문수보살 신앙의 성지이고, 세조가 피부병을 고친 가피의 서사가 동자로 현현한 문수보살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다. 세조는 계곡에서 자신의 등을 밀어준 동자의 얼굴을 그리게 했다. 동자는 세조에게 자신이 문수보살임을 밝혔다. 즉, 오대산 문수보살 성지신앙과 세조의 문수동자 가피 서사가 결합한 역사적 체험 산물로서 동자형 문수보살이 등장한 것이다. 세조의 왕명과 왕실 발원으로 새로운 보살상이 탄생했다. 화려한 보관을 쓴 초월적 존재로서의 보살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장식 없는 민머리를 쌍상투식으로 묶음머리를 한 동자형 보살이 탄생했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보살의 인간화였다.

### 금강문 속 문수보현동자상의 등장

문수동자상은 필연적인 대응으로 보현동자상과 병행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이의 한 쌍, 문수보현동자상으로 출현했다. 한 쌍으로 정립된 모습은 7년쯤 지난 1473년 무렵이었다. 그 주인공은 영암 월출산 도갑사 해탈문에 봉안한 문수보현동자상이다. 제작 시기 논란도 있고, 오대산 문수동자상과 연결 고리도 밝혀진 바 없다. 법당도 아닌 사찰 진입 공간인 삼문 중의 한 곳에 신앙 대상인 초월적 존재를 봉안한 것은 파격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형식은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보편 형식처럼 확산했다.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찰을 중창하는 대규모 불사 과정에서 정형 형식으로 조영됐다. 17세기 중엽 대규모 중창 불사의 중심엔 병자호란과 그 후에 승군 조직을 통솔했던 팔도도총섭 벽암 각성 스님이 계셨다.

세 차례 이어진 전쟁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다. 나라와 불국토를 수호하는 강력한 물리력 구축이 사찰 재건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수호신장에 감히 넘볼 수 없는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고 육중한 몸으로 체격을 극대화했다. 또 법당의 성소까지 여러 관문을 거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일주문-금강문-천왕문 형식의 삼문 형식이 정착하고, 전에 본 적이 없는 거대한 사천왕상이 조영됐다. 갑옷과 무기를 무장한 거인들이 등장했다. 동시에 금강문엔 천하무적의 금강역사를 좌우에 배치해 온갖 마장과 외침을 물리치는 강력한 정토수호 물리력으로 삼았다. 금강문에 금강역사, 천왕문에 사천왕상을 이중, 삼중의 외호 물리력으로 세워 산사가람을 삼엄하게 성역화했다.

이때 금강문에 한국 불교미술 특유의 형식이 확립되고 확산됐다. 금강역사와 문수보현동자상을 함께 봉안하는 정형을 영조법식의 규범처럼 정립한 것이다. 금강문에서 동(향우측)-밀적금강(훔금강역사)-청색 사자 탄 문수동자, 서(향좌측)-나라연금강(아금강역사)-흰색 코끼리 탄 보현동자의 구도가 정착했다. 이 구도는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구례 화엄사 금강문, 김제 금산사 금강문, 완주 송광사 금강문, 하동 쌍계사 금강문, 보은 법주사 금강문(동자상이 아니라 보살상으로 표현한 사례다), 공주 마곡사 해탈문과 영암 도갑사 해탈문에서 엄격히 구현됐다. 물론 약간의 변용은 있지만, 그 정형을 변형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동자형 보살은 상원사에서 첫 등장**
**금강문에 금강역사와 두 동자상 봉안**
**벽암 스님 중창불사 지역에 집중 분포**
**현존하는 문수보현벽화 중 최대 크기**

그 대부분의 사찰 조영은 한결같이 벽암 각성 스님의 불사 재건 활동 공간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전쟁의 폐허 위에 모든 것을 새로이 구축해야 했다. 호국불교의 위상으로서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금강역사와 사천왕상을 조성했다. 동시에 전쟁 기간 치켜들었던 피 묻은 칼을 땅속 깊이 묻고 수행자의 길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깨달음의 길, 자리이타 자비행의 길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수행자상이 요구됐다. 그것은 불퇴전의 다짐처럼 강고하기에 가람의 맨 앞자리에, 그리고 금강의 자리에 함께 배치했다. 문수보현동자상을 금강역사가 있는 금강문에 함께 봉안한 것이다. 동자상은 초발심과 순수, 청정한 마음과 상통하는 상징적 존재였다. 한국 불교미술에 수행자의 길을 제시하는 인간화된 보살상, 즉 문수보현동자상이 온전히 정립됐다. 청색 사자를 탄 문수동자상, 흰색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상의 정형이 확립된 것이다. 그것은 세계 불교미술사에서 유례가 없는 도상이며, 파격적인 유일무이한 구도였다.

### 현존하는 문수보현동자벽화 총 21곳

한국 불교미술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문수보현동자벽화도 그 조형 정립의 연장선에 자리한다. 중심 불전 좌우 벽면에 대형화면을 조성해서 문수보현동자 한 분씩 독립적인 대형벽화를 조성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장면이다. 그것도 궁극의 초월자 모습이 아닌 천진난만한 동자 수행자의 모습이라니! 그 장면의 모티프는 어쩌면 〈화엄경〉에서 성불의 구도행을 실증해 보이는 선재동자에 접목한 것인지도 모른다. 선재동자가 성불의 길을 보여 준다면 문수보현동자는 수행자의 길을 보다 대중적으로 일깨워 준다. 문수보현동자 벽화가 쌍으로 현존하는 곳은 총 21곳으로, 대구 용연사 극락전과 영광 불갑사 대웅전의 경우 코끼리 탄 보현동자도만 창방 등에 남아 있지만 원래는 함께 그려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두 곳까지 포함하면 전국 23곳에 문수보현동자벽화가 분포하는 셈이다.

그중 대표적인 문수보현동자벽화는 영덕 장육사 대웅전 벽화, 제천 신륵사 극락전 벽화, 김천 직지사 대웅전 벽화 등 세 곳의 대형벽화다. 화면 크기는 신륵사(평균 세로 229㎝×가로 179㎝), 직지사(평균 141㎝×257㎝), 장육사(평균 130㎝×204㎝) 순으로 크다. 직지사와 장육사 화면은 가로가 긴 형태로 안정감을 준다. 반면 제천 신륵사 벽화는 화면 크기도 현존하는 문수보현동자벽화 중에서 최대이려니와 세로가 길어서 벽화에서 수직 특유의 힘이 뻗친다. 제천 신륵사 문수보현동자벽화는 종교교의, 예술미학, 불교미술사 등에서 세계 불교미술사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색채의 미 문수동자도, 형태의 미 보현동자도

신륵사의 두 동자벽화는 '좌청룡 우백호'의 동양철학 규범을 따르고 있다. 동-청색 사자 탄 문수동자, 서-흰색 코끼리 탄 보현동자로 배치해서 방위와 단청색을 법식에 맞게 통일했다. 두 벽화를 그려 나간 붓질은 탁월하다. 기운생동한 에너지가 화면에 충만하다. 두 동자는 체격, 옷차림, 표정, 자세 등 전반적으로 쌍둥이처럼 닮았다.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이나 앉은 자세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질 뿐이다.

문수동자가 붉은 연꽃 가지를 양손에 들고 있다면 보현동자는 오른손으론 경전으로 보이는 책을 펼쳐 들고 왼손으론 흰색 연꽃 가지를 들어 어깨 위에 걸쳐 두고 있다.

바라밀행의 실천적 힘은 지혜에서 나온다. 지혜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고, 실천 없는 지혜는 공허하다. 지혜와 실천은 불가분이다. 유희좌 형식으로 앉은 자세에서도 한 동자는 오른 다리를 늘어트렸고, 다른 동자는 왼 다리를 내린 차이의 정도밖에 없다. 보현동자도가 형태 묘사력이 탁월하고 화면공간과 여백을 경영하는 '경영위치' 감각이 뛰어나다면 문수동자도는 대상에 조화로운 색채를 베푸는 '수류부채' 능력이 돋보인다. 수류부채 능력은 잘 빗질된 사자의 갈기에 입힌 색채에서 한눈에 드러난다. 턱 밑과 입가의 터럭 한 올 한 올에, 등의 갈기에 오채의 빛을 정성 들여 올려 현실 너머의 서수로 승화시켰다. 오채색의 조화로운 배색을 통해 사자의 초현실성을 살려 냈다면 코끼리에선 형태의 묘사에서 신령한 서수의 감각을 이끌어 냈다. 여섯 상아의 표현과 함께 등과 꼬리에 길게 늘어트린 긴 털은 코끼리를 신령한 존재로 끌어올린다.

외곽선을 그려 나간 묘법은 선의 굵기에 강약 리듬을 가진 유엽묘를 구사했다. 유엽묘의 선묘법은 바람 타는 천의 자락의 율동적이며 우아한 곡선 흐름에 리드미컬한 탄성력을 불어넣는다. 선, 형태, 색, 어느 하나 부족한 측면이 없다. 불교미술사적 의의를 떠나서도 예술미학 차원에서도 대단히 힘 있고 부드러우며 세련된 명작이다. 예술에서 힘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춘다는 것은 '따뜻한 아이스커피'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일이다.

두 동자의 벽화에 나부끼는 천의 자락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붉은색 면과 푸른색 면이 뫼비우스 띠처럼 앞뒤 구분이 없다. 앞이 뒤이고 뒤가 앞이다. 불이(不二)의 교리가 녹아 있다.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바라밀 실천행은 둘이 아니다. 깨달음의 길은 지혜로써 건너고 바라밀행의 실천으로써 완성하는 법이다. 문수보현벽화의 불립문자로 전하는 직지(直指)다.



노재학 작가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수 천번의 내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본 마이크는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만 본사 유선 마이크로 소리만 비교시 귀 법당의 마이크 가격이 수 백만원이라도 본사 마이크와 비교시 놀라운 차이 확인!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가격 50만원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60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현장 방문 시설가격
₩ 6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60만원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